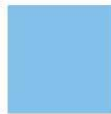




2013년 3월 12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 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3월 동시만기: 불안한 중립

• 경제분석

미국 고용 호조에도 양적완화는 연내 지속될 것

• 채권분석

1930년대 글로벌 통화정책의 데자뷰

• 이머징마켓 동향

경제지표 예상 하회, 중국증시 약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우주일렉트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전자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통신서비스, 철강, 디스플레이, NHN, 루멘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04(월)	03/05(화)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3.15	2,016.61	2,020.74	2,004.40	2,006.01	2,003.35
	등락폭	-13.34	3.46	4.13	-16.34	1.61	-2.66
	등락종목	상승(상한)	455(2)	417(2)	291(2)	447(5)	277(5)
		하락(하한)	335(1)	382(2)	511(0)	344(1)	544(0)
	ADR	100.92	105.80	108.12	110.41	110.11	106.82
	이격도	10 일	100.26	100.26	100.29	99.58	99.65
		20 일	101.60	101.62	101.66	100.67	100.26
	투자심리	60	60	60	5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88	391	382	307	394
	거래대금	(십억 원)	3,726	4,044	3,640	3,515	3,760
코스닥	코스닥지수	537.38	543.96	544.36	541.30	543.10	540.44
	등락폭	1.51	6.58	0.40	-3.06	1.80	-2.66
	등락종목	상승(상한)	591(8)	461(13)	338(7)	455(10)	272(9)
		하락(하한)	339(2)	462(1)	590(4)	460(0)	672(2)
	ADR	111.37	117.24	121.16	122.08	117.71	113.24
	이격도	10 일	102.49	102.15	101.27	101.26	100.54
		20 일	104.88	104.52	103.50	103.45	102.56
	투자심리	80	80	80	70	80	70
	거래량	(백만 주)	450	481	503	484	513
	거래대금	(십억 원)	2,390	2,338	2,247	2,093	2,42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02.2	913.1	1,128.8	192.7	129.8	263.4	59.9	45.4	172.1	34.7
	매도	1,866.2	1,134.8	738.2	143.5	135.4	234.1	34.6	23.4	150.5	39.7
	순매수	-164.0	-221.7	390.6	49.2	-5.6	29.3	25.3	21.9	21.7	-5.0
	03 월 누계	-154.2	260.2	-73.0	114.1	-4.2	-475.0	-23.6	-22.8	65.0	-33.0
	13 년 누계	-842.8	-60.4	1,265.5	1,047.6	378.6	-1,797.9	-202.2	18.3	1,535.5	-362.3
코스닥	매수	2,223.5	99.8	112.1	19.8	12.0	29.5	9.0	2.9	27.1	14.1
	매도	2,257.4	86.5	89.2	19.3	15.2	23.0	3.9	4.2	20.8	16.5
	순매수	-33.8	13.3	22.9	0.5	-3.1	6.4	5.0	-1.3	6.3	-2.4
	03 월 누계	-172.0	166.2	35.2	-4.9	12.5	-15.7	-9.2	-3.4	35.2	-29.3
	13 년 누계	-810.5	467.3	526.3	69.2	40.8	132.4	5.1	-16.8	275.5	-183.0

3월 동시만기: 불안한 종립

3월 월간 밴드	1,93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60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7.8%p

- ▶ 순차익잔고 5.0조 원, 2월 옵션만기일 이후 1.3조원 증가
- ▶ 긍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베이스스 강세 지속
- ▶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스프레드 강세로 인한 롤오버 예상

■ 순차익잔고 5.0조원, 2월 옵션만기일 이후 1.3조 원 증가

2월 옵션만기일 이후에 매수차익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순차익잔고가 약 1.3조원 증가했다. 해당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각각 7천억원 이상의 매수차익 포지션을 추가 설정하였다. 순차익잔고의 증가는 지난 만기일 이후에 청산될만한 매수차익 물량이 없었고, 베이스스의 강세전환으로 인해서 매수차익거래 물량이 새로이 유입될만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쌓여있는 5조원의 순차익잔고는 1) 작년 8월에 외국인에 의해서 유입된 물량 3.7조원과 2) 2월 중에 유입된 기관 및 외국인 물량 1.3조원이다. 먼저, 작년 8월에 유입된 잔고는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이번 만기일에 청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월 중에 베이스스 강세에 의해서 유입된 매수차익거래 물량은 3월-6월물 스프레드 강세로 인해서 롤오버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 긍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베이스스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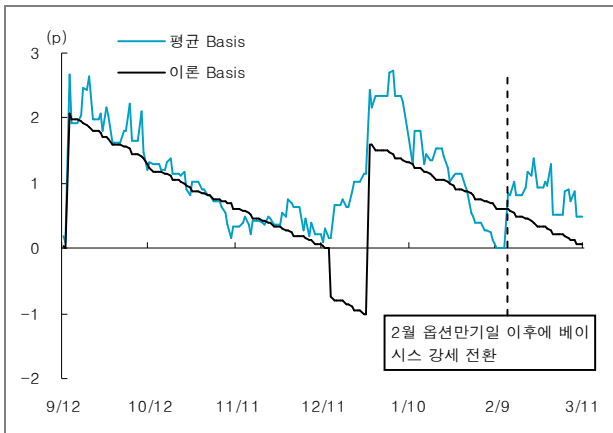
2월 옵션만기일 이전에 약세를 보이던 베이스스는 2월 옵션만기일 직전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월 22일과 28일에는 이례적으로 장중평균 베이스스가 이론 베이스스를 1.0p 상회하기도 했다. 이러한 베이스스의 강세는 한국증시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낸다. 시장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충분하지 않으면, 베이스스 강세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옵션만기일 이후에 크게 증가한 매수차익잔고는 이러한 베이스스 강세의 결과이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스프레드 강세 현상 또한 지수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스프레드 강세로 인한 롤오버 예상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는 선물간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3월-6월물 스프레드는 1.95p(3월 11일 종가 기준)로 이론 스프레드인 1.63p보다 0.32p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기존의 매수차익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3월물 선물을 6월물 선물로 교체하는 롤오버전략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번 동시만기일은 높은 스프레드로 인해 매도충격 없이 무난한 만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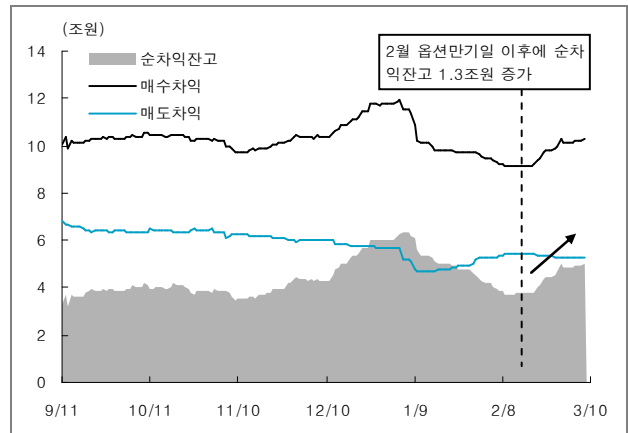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지정학적으로는 북한에 의해 급속히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가 스프레드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 2) 순차익잔고의 절대 규모가 큰 점, 3) 2월에 유입된 매수차익잔고는 이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대량 청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 충격도 염두에 뒀다 할 것이다.

[그림 1] 이론, 평균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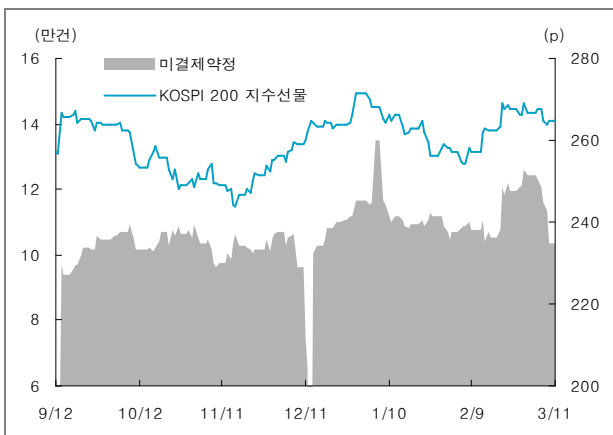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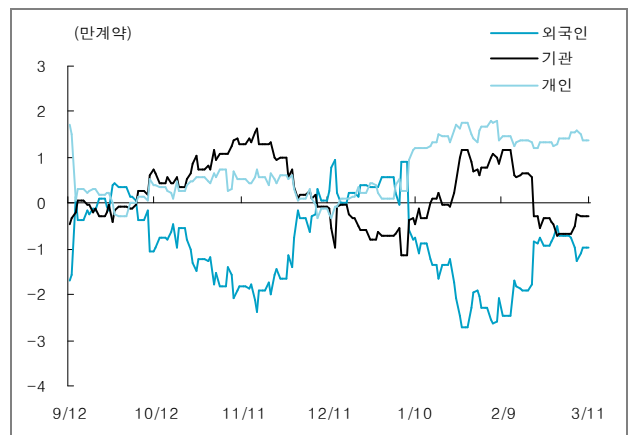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선물 가격과 미결제 약정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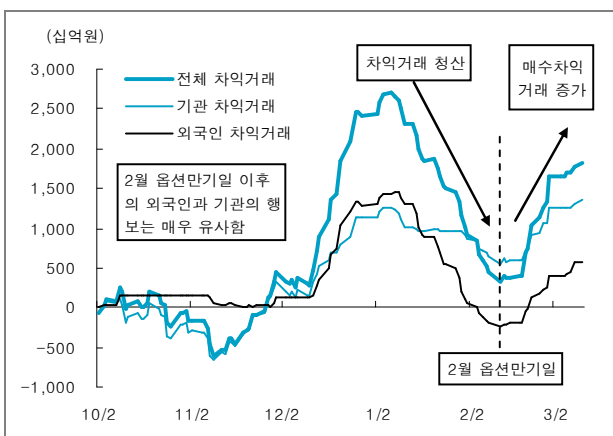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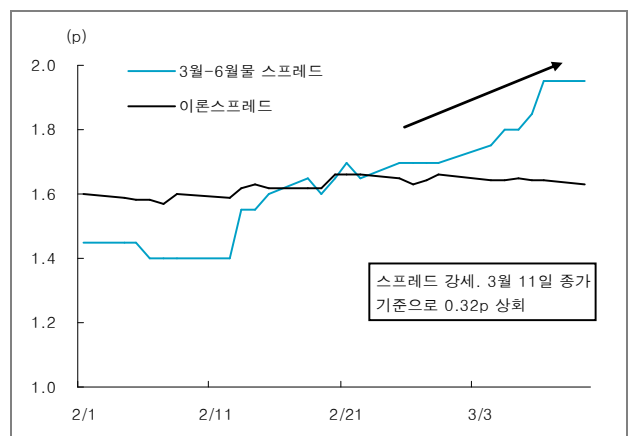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투자주체별 차익거래 누적 순매수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스프레드 추이(3월-6월물)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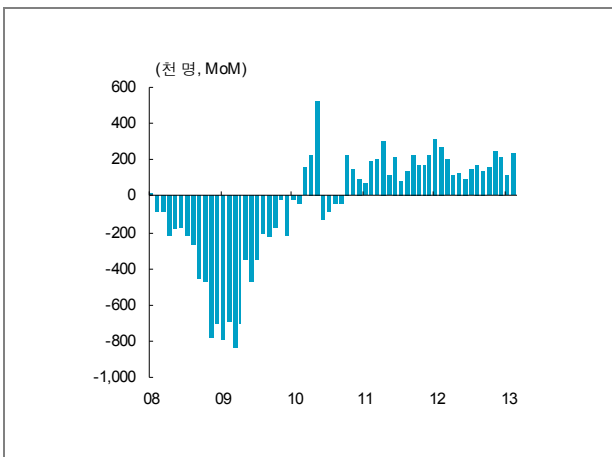
미국 고용 호조에도 양적완화는 연내 지속될 것

- ▶ 미국 비농가 고용 전월 대비 23.6만명 증가, 실업률은 7.7%로 하락
- ▶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개선 등 민간 부문 회복 이어지더라도 추가 고용에 보수적
- ▶ 시퀘스터 가동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양적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논의는 이름

■ 미국 2월 고용 예상외 호조, 실업률 7.7%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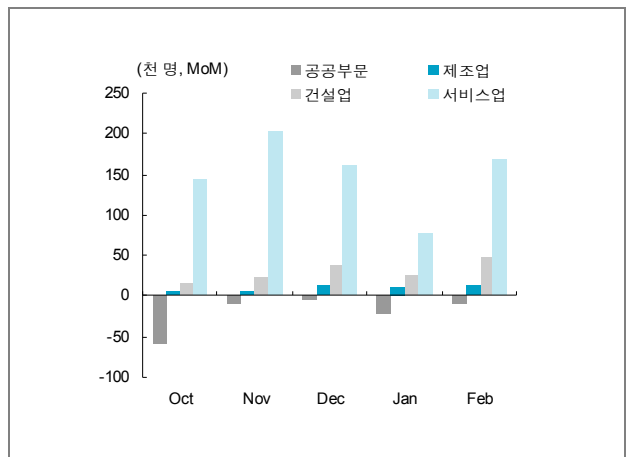
미국의 2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 대비 26.3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16.5만명은 물론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7.9%에서 7.7%로 낮아졌다. 민간의 주도 하에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건설업, 건축공학 관련 전문서비스업 고용이 늘었고, 제조업 고용도 확대됐다.

[그림1] 미국 비농가 취업자수



자료: 미국 노동부

[그림2]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가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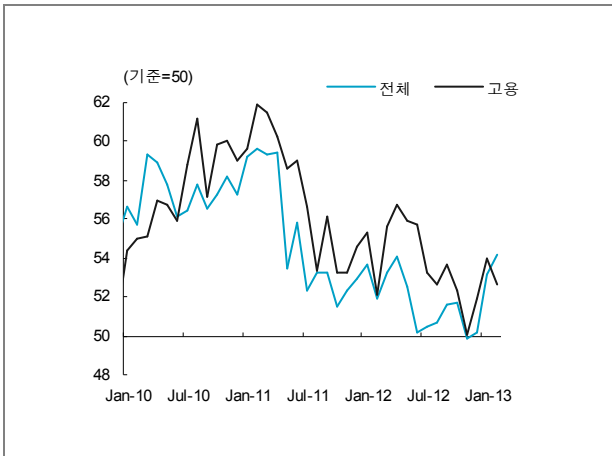
■ 월간 20만명 이상의 고용 증가세 유지 어려울 것

최근 4개월간 미국 고용 증가세를 보면, 지난 1월을 제외하면 모두 월간 20만건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여왔다. 덕분에 작년 7월만 하더라도 8.2%였던 실업률은 0.5%p나 떨어졌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월 20만명 이상의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째, 미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월 중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들 가운데 고용에 대한 입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즉, 수주가 증가하고 생산을 늘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고용 확대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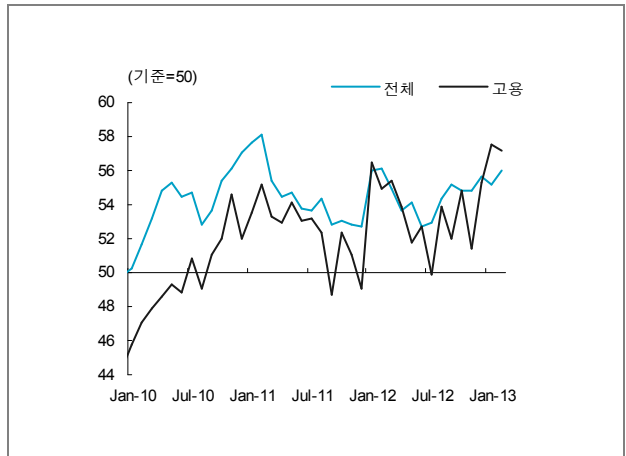
둘째, 시퀘스터 가동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가 미칠 영향이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직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연간 75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2년 간 연평균 고용이 215만명씩 증가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고용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이 단기에 급격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할 정도로 강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공공 부분의 리스크가 크다.

[그림3] ISM 제조업



자료: 미국 노동부

[그림4] ISM 비제조업



자료: 미국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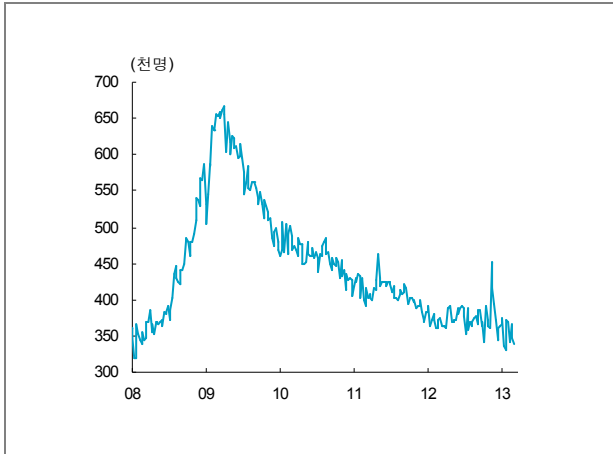
■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의는 시기 상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데다 2월 고용이 예상을 큰 폭 상회하면서 일부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그 때마다 ‘실업률을 떨어뜨릴 정도로 고용 회복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 입장의 근거가 돼왔는데 이러한 논리를 약하게 만들 여건이 조성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향후 고용 흐름이 최근 4개월과 같은 호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의는 시기 상조이다.

2월 마지막주 조사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4만건으로 큰 폭 개선됐지만 3월 첫째주에는 다시 35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시퀘스터 가동에 따른 리스크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Fed가 성급하게 MBS 관련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추가 양적완화 시행으로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준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아직 충분한 회복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이 모기지 금리 상승세를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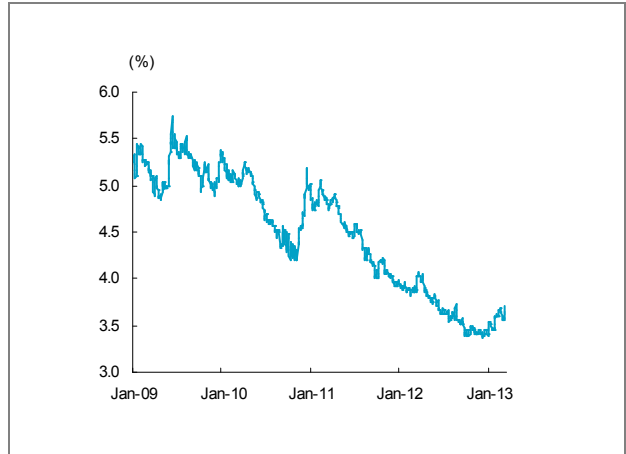
여타 주요국에 비해 미국 경기 회복세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감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마저 동시에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은 경기를 크게 위축케 할 우려가 있다. 향후 미국 고용은 월간 15만건 내외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 축소 등을 둘러싼 논의가 올해 안에 구체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림5]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자료: 미국 노동부

[그림6]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



자료: Bloomberg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1930년대 글로벌 통화정책의 데자뷰

■ 지난주 시장동향: 3월 금통위 앞두고 높아지는 관망심리

지난주 채권시장은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로 출발했다. 높아진 대외불확실성과 레벨부담이 상충하는 가운데 채권금리는 횡보했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었지만, 3월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높아 금리변동성은 제한되었다. 결국 채권금리는 전주보다 스티프닝되어 마감되었다.

■ 1930년대 글로벌 통화정책의 데자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채권매입으로 유동성팽창이 지속되든, 빠른 출구전략으로 위험자산의 조정이 일어나든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어려워 보인다. 선진국의 통화완화로 글로벌 총수요가 늘어나면 한국경제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금본위제를 최후까지 고수한 국가들의 경기회복은 매우 느렸다.

■ 이번주 시장전망: 상고하저, 플레트닝 흐름 예상

우리는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과 공조할 정부의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가 4월로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포지션은 BM대비 중립이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절대금리 부담이 있는 단기구간보다는 5년이상 중장기물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 미국채 금리상승의 여파로 채권금리가 주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경제지표 예상 하회, 중국증시 약세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도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1.2% (12월 누적 20.6%)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소매판매 증가율 12.3%, 1년래 최저 수준(12월 15.2%)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9.9%, 2009년 이래 최저 (12월 10.3%)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사흘째 하락.
소비재, 은행주 약세 주도.
부동산, 철도운송주는 강세

상해종합지수가 사흘째 약세로 마감했다. 거래금액은 739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보다 줄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신규대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매수심리가 위축됐다. 1~2월 산업생산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돼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1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면서 소비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그 외 2월 위안화 신규대출이 예상을 하회한 영향으로 은행주가 동반 하락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개발투자 및 주택판매지표 호조로 부동산주가 반등했고 철도부 폐지 소식에 철도운송주도 강세를 보였다. 중국 증감회가 홍콩/마카오/대만 개인의 A주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QFII, RQFII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시사한 것도 우호적인 요인이었다. 은행(-1.5%), 석탄(-1.3%), 미디어(-1.2%), 음식료(-1.0%), 보험(-0.8%), 철강(-0.7%), 시멘트(-0.7%), 증권(-0.6%), 여행(-0.6%), 화학(-0.4%), 전력(-0.3%), 자동차(-0.3%), 비철금속(-0.3%) 등의 업종이 약세였다. 반면 SOC(+1.7%), 부동산(+0.9%), IT하드웨어(+0.8%), 통신장비(+0.8%), 신재생에너지(+0.5%) 등은 올랐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약세 전환.
에너지, 소비재 관련주
하락

홍콩H지수는 지난주 후반 급등 이후 반락했다. 강세 개장 후 점차 상승폭을 축소하며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했다.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내수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이 하락배경이었다. 그 외 미국의 2월 전국 평균 실업률이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회복된 것은 긍정적인 재료였지만 이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우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해 안에 QDII2가 정식 출범해 홍콩증시로의 중국 본토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기존에 알려진 내용으로 별다른 호재가 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천연가스, 음식료, 자동차, IT, 운송, 소매유통, 헬스케어, 화학, 철강/비철금속이 내렸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3/11(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10.59	-0.34	1.64	-2.32	1.83
홍콩 H	11,435.82	-0.42	2.98	-0.01	0.00
인도 SENSEX	19,696.50	0.07	4.34	4.43	1.39
러시아 RTS	1,548.13	1.05	2.54	0.89	1.39
브라질 보베스파	58,432.75	-0.70	2.72	1.76	-4.13
베트남 VN	476.50	1.24	1.66	0.41	15.17
MSCI 이머징마켓	1,065.94	0.76	2.37	1.07	1.02

주: 11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금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고조되며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

- 미국증시는 美 실업률이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며, 다우지수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로 장중 1,980P선까지 하락했으나, 국가지방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방어,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내림세로 마감. 북한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이번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및 금통위의 기준 금리 결정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고조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국 최고 건강식품 브랜드 '네이처메이드'와의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소식에 오뚜기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해외 수출 확대에 올해 본격적인 성장 전망에 씨티씨바이오가 강세를 나타냄.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확대 기대감에 삼천리자전거가 신고가를 기록 경신했으며, KMP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 KT뮤직은 양사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초강세.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며 장 초반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며 상승폭을 반납. 한편, 갤럭시S4 공개를 앞두고 녹색도 인광 물질채택(Green PHOLED) 탑재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형광 그린호스트 공급업체인 CS엘솔라가 매출 감소 우려감에 급락

종목/테마	내 용
오뚜기(007310) ▶267,500(+4.29%)	‘네이처메이드’와의 독점 판매계약 체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미국 최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네이처메이드’와 한국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네이처메이드’는 140여개의 제품을 전세계에 판매 중으로, 당사는 오는 5월부터 총 8종을 1차로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할 예정
씨티씨바이오(060590) ▶26,300(+3.95%)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에 강세 -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인 ‘플리즈’의 해외 수출 계약으로 올해 본격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 기대감에 강세 -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효소첨가제 ‘씨티씨자임’이 하반기까지 미국 품목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231억원의 매출 기대
삼천리자전거(024950) ▶12,700(+6.28%)	성수기 효과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최근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봄 성수기를 맞아 매출 증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자전거 이용층이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 휴일제와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개정안 내용 등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KT뮤직(043610) ▶3,530(+11.01%)	KMP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초강세 - 출시앨범마다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빅 음원콘텐츠들을 유통하는 KMP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초강세 - KMP홀딩스는 올 상반기 SM, YG, JYP 등 대형 기획사의 신규 음원 출시는 물론 콘텐츠 투자를 통해 다양한 기획사의 음원 유통을 확대할 계획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우주일렉트로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우주일렉트로 (065680)	27,750 (+0.4)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2,200 (-5.1)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엘 (005850)	14,000 (+4.1)	13,450 (2/06)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믹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국)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씨넥스 (097520)	13,700 (+71.0)	8,010 (1/31)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6,200 (-1.2)	16,500 (1/21)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LG (003550)	66,100 (-1.3)	67,000 (1/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이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전자 (066570)	78,800 (+1.5)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2.7
- 2012년 휴대폰 부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문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69,000 (-0.9)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9.1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8,950 (+3.6)	18,300 (1/21)	578	58	49	2,156	8.8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296,000 (+8.8)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3.4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삼성전자 (005930)	1,508,000 (-4.3)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2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64,000 (+16.0)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20.0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NHN, SK이노베이션,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미국판매 부진, 중국판매 강세로 충분히 만회

■ 세계 양대 자동차 시장의 판매 강세

미국 산업수요는 작년 11월 연율 1,556만대로 2008년 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산업수요는 1,536만대로 전년동월 1,447만대, 1월 1,528만대보다 증가해 미국시장은 200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1,500만대 이상 판매되었다. 미국의 1~2월 산업수요는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고, 1월 중국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8.7%나 증가했다. 한편 엔화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Big 3 모두 2월 미국 인센티브를 전년동월에 비해 줄였으며 영토 분쟁으로 여전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 미국판매 부진, 중국판매 강세로 충분히 만회

현대와 기아의 2월 미국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했으나 Azera, Santa Fe, Elantra, K5 등의 주도로 제품 믹스 개선은 지속됐다. 또한 중국판매 강세로 미국판매 부진을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 현대, 기아의 1~2월 양대 시장 합산 판매는 442,759대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했다(현대 273,240대(+27.1% YoY), 기아 169,519대(+11.3% YoY)).

■ 미국시장 점유율 반등 지속될 전망

2월 양사의 미국판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산업평균을 5개월 연속 하회했다. 그러나 점유율은 전월대비 2개월 연속 회복됐으며 미국재고도 2월부터 거의 정상화됐다. NC Santa Fe, Sorento facelift, K3, K7 등의 신모델 출시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미국시장 점유율 반등이 가속될 전망이다. 현대와 기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320,000원(12MF PER 10배 적용, 역사적 평균치에 10% 할증)과 79,000원(12MF PER 8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통신서비스: 영업정지로 촉발된 경쟁은 점차 완화될 전망

■ 1분기에 영업정지 불구 LTE 가입자 유치전으로 경쟁 심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끝나간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1.7~1.30)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SK텔레콤 22일(1.31~2.21), KT 20일(2.22~3.13) 순이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마케팅 경쟁 강도는 예상과 달랐다. 당초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돼 마케팅 경쟁이 완화되고, 업체별 영업정지 일수가 비슷해 가입자수 변동도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마케팅 경쟁은 4분기보다 심화됐다. 1~2월 중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31,137명으로 12년 4분기 25,689명 및 12년 28,871명보다 많았다.

■ 이동통신 및 LTE 점유율 확대 전략이 경쟁 촉발

01년, 04년의 영업정지 기간과 달리 경쟁이 심화된 것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LTE 가입자 유치가 경쟁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점유율 50% 유지 정책과 LTE로 점유율을 높이려는 LG유플러스가 충돌했다. 게다가 LTE 점유율(12월 24.7%)을 이동통신 점유율(30.8%) 수준으로 높이려는 KT의 전략이 가세해 경쟁이 심화됐다.

■ LGU+가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우위 지속

올해 들어 3월 7일까지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유입)이 13.7만명에 달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7.3만명, 1.8만명 줄었다. 3월 13일까지 KT의 영업정지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전에서 우위를 지속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LTE 네트워크 조기 구축으로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이어지는 데다 약정기간이 30개월 이상으로 긴 LTE 가입자 비중이 48.1%로 높아 기존 가입자 이탈이 적기 때문이다.

■ 3월까지 경쟁은 치열할 것이나 4월부터는 점차 완화 예상

이제 관심사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3월 14일 이후 경쟁이다. SK텔레콤의 50% 점유율 유지 정책과 KT의 LTE 보급 확대 전략으로 3월말 점유율이 중요해졌다. 3월말까지 어느 정도 경쟁이 불가피한 이유다. 하지만 4월 이후 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1) LTE의 보급률이 높아져 갤럭시S4의 영향이 이전보다 축소될 것이다. 신규 선호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가입자는 늘지만 보조금이 줄어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2) 3월에 LG유플러스까지 3사 모두 약정 위약금제를 도입하면 해지율이 하락할 것이다. 3) 국회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제화되면 효과가 클 것이다. 1분기는 당초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한 반면 2분기는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완화될 것이다.

■ 경쟁완화 예상, 수익성, 성장성 회복으로 비중확대 의견

통신주는 12년 6월 이후 시장 대비 outperform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 주가 상승과 치열한 LTE 가입자 유치경쟁에도 불구하고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1) LTE 효과로 13년 3사ARPU는 8% 증가해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1분기에 과열 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늘어날 것이나 13년 연간으로 보면 매출 증가로 수익은 호전될 것이다. 통신 4사의 1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0% 증가할 전망이다. 3) 요금인하 압력이 가입비 인하 정도에 그쳐 규제 리스크가 완화됐다. 4) SK텔레콤과 KT의 12MF PER이 7.2배, 6.9배로 낮고 배당수익률은 5.1%, 5.4%로 높다. LG유플러스는 높은 성장으로 14년 PER이 7.7배로 낮아질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8일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철강: 고로사,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valuation은 매력적

■ 원료는 강세, 제품 가격 약세로 1분기 고로사 실적은 예상을 하회할 것

1분기 별도기준 POSCO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각각 5,290억원(QoQ +12.2%, YoY +39.6%)과 1,260억원(QoQ -18.5%, YoY -22.8%)으로, 당초 우리 추정치(POSCO 5,750억원, 현대제철 1,450억원)대비 각각 8%와 13.8%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컨센서스(POSCO 6,481억원, 현대제철 1,426억원)을 각각 18.4%와 12.3% 하회한다. 이는 현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그 만큼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POSCO와 현대제철의 톤당 영업이익은 각각 6.1만원과 3.5만원으로 예상치인 6.6만원과 4.1만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 열연 우위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높아

1분기 시황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열연 가격은 상승하고 냉연 가격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먼저 열연 가격이 상승해서 냉연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오히려 자동차용 강판은 하락했고, 일반 냉연은 인상되지 못했다. 여기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 하락 이후 자동차용 열연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냉연보다 열연 우위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우리는 2분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현대하이스코가 5월부터 연산 150만톤 규모의 당진 제 2 공장을 가동하면서 원재료인 열연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공급하는 현대제철의 수혜가 예상된다.

■ 철강 시황 개선은 춘절 이후 급증한 중국 유통 재고 소진이 관건

우리는 1월에 발간한 '춘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 축적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춘절 이전까지 중국의 유통 재고량은 직전 3년보다 낮았다. 그런데, 춘절이 3주가 지난 현재는 오히려 유통 재고가 1,997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춘절 이후 줄어야 할 재고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향후에 유통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다면 중국 철강 가격 약세 요인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중국 유통 재고의 소진 여부가 고로업체 주가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과거를 볼 때 춘절 이후 아무리 길어도 6주차부터 재고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3월 마지막 주부터 유통 재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실적 부진에 중국 재고 부담도 있지만, 주가는 다시 bottom 가격에 근접해 매력적

우리는 KOSPI PBR과 POSCO와 현대제철 PBR의 역사적 최대 할인률을 기준으로 양사의 주가 저점을 각각 317,000원과 81,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로사 투자 전략으로 이 가격에 근접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대비 POSCO는 7.4%, 현대제철은 3%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주가의 추가 하락률이 크지 않다. 특히, 현대제철은 우리가 예상하는 bottom 가격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먼저 현대제철을 매수하고 중국의 유통 재고 하락이 확인되는 시점에 POSCO를 매수하는 단기 전략을 추천한다. 한편, 부진한 1분기 실적과 우리 예상보다 높은 원재료 가격을 반영해 POSCO와 현대제철의 별도기준 2013년 영업이익을 각각 13.4%와 9.5% 하향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디스플레이: 노동절 이후의 패널수급이 우려스러운 이유

■ TV 완제품업체들이 패널구매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있어 여전히 1분기에도 재고증가 중

TV완제품업체들의 패널구매가 여전히 완제품 수요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12년 TV패널 출하량이 완제품 출하량 대비 13% 많아 산업 내 재고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2013년 1분기에도 여전히 패널출하량이 완제품출하량보다 20% 이상 높을 전망이다. 2012년에는 완제품업체들이 낮아졌던 재고를 채우는 과정이었다면 현재는 하반기 패널업체 생산능력 감소를 예상해 미리 패널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1월 중국TV업체들의 전월 대비 TV패널구매 감소폭이 21%로 2011년 36%, 2012년 42% 대비 크게 낮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널구매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TV 수요 증가율이 하락하는 2분기부터는 패널수요도 같이 악화되어 하반기 패널업체 생산능력 감소가 패널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대만 패널업체 가동률 2월에 잠시 하락했지만, 3월에 다시 90% 수준 회복 전망

대만패널업체들의 1분기 가동률 조정폭이 크지 않아 패널업체들의 보유재고가 지난 2012년말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춘절 수요가 양호했지만, 여전히 TV완제품업체들의 재고수준이 높은 수준이어서 패널업체의 재고가 증가할 경우 2분기 중반 이후 패널수급의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5월 중국 노동절 수요와 하반기 패널업체 capa감소를 대비한 TV업체들의 패널구매가 마무리되는 5월 이후 패널수급이 연초 비수기(1~2월)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3,4월의 패널수요 증가로 인한 패널수급 회복이 단기에 그칠 전망이다.

■ 패널업체 가동률은 패널가격에 후행, 선제적 가동률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아

패널업체 가동률은 패널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후행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분기 패널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아 가동률 하락폭 또한 크지 않은 것이다. 2분기 중반 이후 패널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나서야 패널업체들의 가동률도 지금보다 큰 폭의 조정을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패널업체들이 패널가격 하락 전 선제적인 가동률 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패널업체들의 지난해 말 재고수준이 충분히 낮아져 자체 재고부담이 낮고 2분기 이후 패널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 디스플레이 업종 및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투자 의견 '중립' 유지

산업 내 높은 재고로 패널수급 약화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1, 2월 큰 폭으로 감소한 TV패널 수요가 3, 4월 계절적 수요로 회복되겠지만, 이후 패널수급이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5월 이후 패널가격 하락폭이 1~3월 패널가격 하락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패널업체들의 공급능력 감소로 인한 수급개선 효과는 2014년에 본격화 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유지한다. 애플향 부품수요도 3분기부터 본격 회복이 예상되고, 하반기 패널수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NHN(035420)

매수(유지)

목표가: 330,000원(유지)

종가(3/8): 274,000원

게임 부문 펀더멘털 개선이 뚜렷하다

■ 인적분할로 한게임 경쟁력 강화될 전망, 투자의견 '매수' 유지

NHN의 게임 부문(이하 '한게임') 인적분할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3만원(12개월 forward EPS 15,047원에 목표 PER 21.8배(2012~2014년 EPS CAGR 21.8%에 PEG 1.0배 적용))을 유지한다.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1) 한게임은 인적분할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 한게임 분할 비율이 예상보다 약간 높게 결정됐으나 게임 성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분할후 한게임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분할후에도 주주이익환원정책(자사주 매입,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게임 분할비율이 예상보다 약간 높으나 게임 성과 개선으로 우려할 필요 없어

NHN은 3월 8일 이사회를 열어 게임부분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비율은 NHN 존속법인(네이버) : 신설법인(한게임) = 0.6849 : 0.3151 이나 7월말 기준으로 확정될 때는 순자산비율이 0.696 : 0.304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2013년 6월 28일이고, 분할 기일은 8월 1일이며, 분할 재상장 예정일은 8월 29일이다. 한게임 분할 비율이 시장 예상수준(0.2~0.3)보다 높게 결정된 이유는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순현금의 66.7%를 한게임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한게임 분할 비율이 높아져 분할후 한게임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라인 게임 인기와 피쉬아일랜드, 우파루마운틴 등 스마트폰 게임, 테라 매출 회복, 크리티카 흥행으로 게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게임 출시로 추가 개선될 전망으로 한게임의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게임사업 전략은 글로벌 게임사업 강화와 스마트폰게임 중심으로의 전환

이은상 한게임 대표는 IR행사에서 향후 한게임의 사업전략을 글로벌 게임사업 강화와 스마트폰게임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게임 매출을 2012년 3,800억원 대비 15.7% 증가한 4,396억원으로 전망했다. PC온라인 게임은 웹보드게임 매출 20%이 줄어 8% 감소한 3,368억원, 모바일 게임은 578% 증가한 1,028억원으로 예상했다. 일본 게임 매출을 2012년 대비 11% 증가한 189억엔으로 전망했는데,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3% 감소한 153억엔, 모바일 게임은 215% 늘어난 35억엔으로 예상했다. 모바일게임이 한게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2.0%에서 2015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개발 스마트폰 게임들의 월매출액이 피쉬아일랜드 25억원, 골든글러브 7억원, 라인팝 100억원, 우파루마운틴 26억원(추정) 등으로 성과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웹보드 게임 매출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문화부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안 철회를 권고해 급락 가능성이 제거됐으며, PC온라인게임 매출도 던전스트라이커 등 신규 게임을 출시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785	617	603	473	10,553	13.6	710	21.5	13.6	5.6	41.0
2011A	2,121	656	632	450	10,134	(4.0)	745	20.8	11.3	4.2	31.0
2012F	2,389	703	733	546	12,414	22.5	804	18.3	11.6	3.8	30.5
2013F	2,894	876	856	642	14,740	18.7	999	18.6	11.1	3.7	28.6
2014F	3,328	1,081	1,069	802	18,418	24.9	1,203	14.9	8.8	3.1	27.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루멘스(038060)

매수(유지)

목표가: 12,000원(상향)

종가(3/8): 8,850원

LED 업종 내에서 Top Pick으로 유지

■ 목표주가를 12,000원으로 상향 조정, 매수 의견 유지

동사의 목표주가를 1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 목표주가 상향은 1) TV용 LED를 중심으로 2013년 동사의 매출액을 12% 상향 조정하고, 2) 수익성이 높은 조명용 LED의 비중이 상승해 2013년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루멘스를 LED 업종 내에서 Top Pick으로 유지하는데, 1) 삼성전자 LED TV 부문의 견조한 성장 스토리의 최대 수혜 종목이고, 2) 이제까지 경쟁업체 대비 비중이 낮았던 조명용 LED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3) 패키지업체라는 장점을 보유하여 칩가격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LED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4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요인으로 예상보다 부진. 하지만 fundamental 이상은 아님

4분기 매출액은 시장컨센서스(1,140억원)를 상회하는 1,503억원을 기록했다. 1) 4Q12 기준으로 글로벌 LCD TV 중에서 LED 타입이 81%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ED TV 판매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수혜와 2) LED 조명 가격의 하락, 백열램프에 대한 생산과 판매의 금지 강도의 강화,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명용 LED의 매출 증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83억원(영업이익률 5.5%)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다만 IFRS로의 변경에 따른 영향, 각종 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fundamental 이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 향후 태블릿PC용 LED의 납품을 통해 또 다른 성장모멘텀이 발생할 전망

동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태블릿용 LED의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태블릿PC의 고속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고, 태블릿PC용 LED의 높은 수익성을 감안하면 향후 태블릿PC용 LED는 동사에 또 다른 성장모멘텀을 제공할 전망이다. 우리는 2013년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648억원으로,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439억원으로 예상한다(예상 영업이익률은 7.8%).

■ LED 조명의 성장에 불구, 칩가격은 계속 하락할 전망. 패키지업체의 매력도가 높은 상황

LED 조명의 성장이 진행 중이지만 TV용 LED의 부진과 여전히 공급과잉 상황임을 감안하면 LED 칩가격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칩가격 하락을 통한 원가부담의 감소를 나타내는 패키지업체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LED TV 시장이 성숙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삼성전자의 2013년 LED TV 출하대수 증가율이 27%로 전망되어 올해도 동사의 TV용 LED는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참고로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는 2013년 예상 BPS에 과거 5개년 동안의 평균 PBR 2.5배를 적용하며 산출하였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46	25	25	8	197	50.3	32	41.6	11.1	3.1	8.2
2011A	340	5	13	22	552	180.3	14	11.2	17.2	1.9	19.2
2012F	487	26	23	19	456	(17.4)	38	15.4	8.0	1.9	13.7
2013F	565	44	42	34	778	70.9	56	11.4	6.1	1.9	20.7
2014F	635	55	54	43	949	21.9	67	9.3	4.9	1.6	21.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04(월)	03/05(화)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3.15	2,016.61	2,020.74	2,004.40	2,006.01	2,003.35
	등락폭	-13.34	3.46	4.13	-16.34	1.61	-2.66
	등락종목						
	상승(상한)	312(7)	455(2)	417(2)	291(2)	447(5)	277(5)
	하락(하한)	484(1)	335(1)	382(2)	511(0)	344(1)	544(0)
	ADR	100.92	105.80	108.12	110.41	110.11	106.82
	이격도						
	10 일	100.26	100.26	100.29	99.58	99.70	99.65
	20 일	101.60	101.62	101.66	100.67	100.57	100.26
	투자심리	60	60	60	50	6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51	488	391	382	307	394
	거래대금 (십억 원)	4,142	3,726	4,044	3,640	3,515	3,760
	코스닥지수	537.38	543.96	544.36	541.30	543.10	540.44
	등락폭	1.51	6.58	0.40	-3.06	1.80	-2.66
	등락종목						
	상승(상한)	406(16)	591(8)	461(13)	338(7)	455(10)	272(9)
	하락(하한)	519(4)	339(2)	462(1)	590(4)	460(0)	672(2)
	ADR	111.37	117.24	121.16	122.08	117.71	113.24
	이격도						
	10 일	101.74	102.49	102.15	101.27	101.26	100.54
	20 일	104.01	104.88	104.52	103.50	103.45	102.56
	투자심리	80	80	80	70	80	70
	거래량 (백만 주)	367	450	481	503	484	513
	거래대금 (십억 원)	1,789	2,390	2,338	2,247	2,093	2,42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02.2	913.1	1,128.8	192.7	129.8	263.4	59.9	45.4	172.1	34.7
	매도	1,866.2	1,134.8	738.2	143.5	135.4	234.1	34.6	23.4	150.5	39.7
	순매수	-164.0	-221.7	390.6	49.2	-5.6	29.3	25.3	21.9	21.7	-5.0
	03 월 누계	-154.2	260.2	-73.0	114.1	-4.2	-475.0	-23.6	-22.8	65.0	-33.0
	13 년 누계	-842.8	-60.4	1,265.5	1,047.6	378.6	-1,797.9	-202.2	18.3	1,535.5	-362.3
코스닥	매수	2,223.5	99.8	112.1	19.8	12.0	29.5	9.0	2.9	27.1	14.1
	매도	2,257.4	86.5	89.2	19.3	15.2	23.0	3.9	4.2	20.8	16.5
	순매수	-33.8	13.3	22.9	0.5	-3.1	6.4	5.0	-1.3	6.3	-2.4
	03 월 누계	-172.0	166.2	35.2	-4.9	12.5	-15.7	-9.2	-3.4	35.2	-29.3
	13 년 누계	-810.5	467.3	526.3	69.2	40.8	132.4	5.1	-16.8	275.5	-183.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3,110	운수창고	-20,533
유통업	8,197	건설업	-10,593
음식료품	5,574	화학	-8,752
SK하이닉스	17,794	현대글로벌비스	-15,969
LG전자	10,466	현대건설	-8,952
LG디스플레이	9,832	제일모직	-6,554
KCC	7,017	현대차	-6,525
삼성전자	6,762	LG화학	-5,90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1,395	유통업	-7,640
금융업	4,724	건설업	-4,812
서비스업	3,760	철강및금속	-4,051
삼성전자	13,983	SK하이닉스	-13,493
LG디스플레이	7,057	기아차	-3,421
삼성전기	4,038	LG화학	-3,327
KCC	3,541	호텔신라	-3,107
현대위아	3,115	한국가스공사	-2,97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5,361	통신업	-917
화학	4,104	비금속광물	-251
서비스업	2,609	은행	-60
KODEX 200	2,669	삼성전자	-1,984
KODEX 레버리지	2,165	TIGER 200	-836
현대차	1,857	SK	-799
엔씨소프트	1,456	KT	-545
현대건설	1,385	SK텔레콤	-40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8,388	서비스업	-7,644
유통업	6,509	의약품	-4,858
철강및금속	2,254	화학	-4,448
KODEX 200	38,876	일양약품	-5,450
삼성전자	9,748	엔씨소프트	-4,925
TIGER 200	4,229	대한항공	-4,481
삼성물산	3,829	SK하이닉스	-4,176
KT	3,622	LG화학	-3,69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42,896	운수창고	-21,034
운수장비	51,883	건설업	-7,690
서비스업	37,014	의료정밀	94
삼성전자	108,820	현대글로벌비스	-15,215
현대차	23,344	KODEX 레버리지	-14,885
LG디스플레이	18,035	현대건설	-8,663
KCC	14,701	대한항공	-5,815
LG전자	14,165	엔씨소프트	-5,656
현대중공업	13,641	제일모직	-5,098
SK이노베이션	12,026	일양약품	-4,469
삼성물산	12,010	SK C&C	-3,830
POSCO	10,353	TIGER 레버리지	-2,950
KB금융	8,222	일진디스플레이	-2,94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6,921	운수장비	-91,824
운수창고	2,999	전기,전자	-54,306
의약품	1,856	금융업	-28,143
SK하이닉스	57,964	삼성전자	-115,938
LG디스플레이	10,367	현대차	-55,437
SK텔레콤	7,904	NHN	-21,056
LG생활건강	7,671	기아차	-16,916
GKL	6,023	SK이노베이션	-10,922
엔씨소프트	5,209	KB금융	-10,280
현대글로벌비스	4,435	현대중공업	-9,845
현대위아	4,201	롯데케미칼	-8,670
고려아연	3,814	효성	-7,325
오리온	3,786	현대모비스	-6,84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도매	3,121	반도체	-2,108	제약	2,389	방송서비스	-1,123
소프트웨어	2,086	전문기술	-1,108	화학	1,522	금속	-1,096
제약	2,002	통신서비스	-1,080	연구,개발	1,253	IT부품	-855
동서	2,542	유진테크	-2,329	차바이오앤	1,356	파트론	-2,743
에이블씨엔씨	1,338	잉크테크	-1,139	바이로메드	1,206	CJ오쇼핑	-1,282
파라다이스	1,291	SK브로드밴드	-1,075	씨티씨바이오	1,096	성광벤드	-1,203
성우하이텍	911	CJ E&M	-889	코오롱생명과학	1,092	비에이치	-1,174
하나투어	808	일진에너지	-704	인터플렉스	1,035	덕산하이메탈	-85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368	제약	-652	오락,문화	927	금융서비스	-3,742
사업지원	330	반도체	-524	전문기술	852	IT부품	-970
소프트웨어	162	금속	-477	사업지원	811	금속	-808
다음	368	메디톡스	-943	인터파크	925	파트론	-1,222
하나투어	276	포스코엠텍	-404	파라다이스	908	키움스팩1호	-1,043
KG이니시스	270	인터플렉스	-243	루멘스	894	한국스팩1호	-839
위메이드	192	유진테크	-221	메디톡스	884	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팩	-828
메디포스트	146	파라다이스	-143	하나투어	716	성광벤드	-72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도매	6,836	통신서비스	-4,456	IT부품	3,485	제약	-1,877
제약	6,589	IT부품	-4,139	디지털컨텐츠	3,294	화학	-1,462
소프트웨어	4,027	반도체	-3,659	컴퓨터서비스	3,213	도매	-1,323
코오롱생명과학	3,228	파트론	-4,607	유진테크	3,183	에이블씨엔씨	-2,483
동서	2,914	SK브로드밴드	-4,451	파라다이스	3,121	코미팜	-1,097
에이블씨엔씨	2,849	유진테크	-2,811	슈프리마	3,099	에스엠	-985
하나투어	2,738	성광벤드	-1,983	KH바텍	1,828	모베이스	-835
매일유업	2,602	네패스	-1,870	게임빌	1,661	유원컴텍	-828
바이로메드	2,592	덕산하이메탈	-1,326	파트론	1,623	동서	-776
씨티씨바이오	2,491	비에이치	-1,206	매일유업	1,503	메디톡스	-664
파라다이스	2,469	잉크테크	-1,152	이엘케이	1,477	차바이오앤	-606
성우하이텍	2,095	이엘케이	-897	CJ오쇼핑	1,459	인터플렉스	-546
루멘스	1,582	하이룩코리아	-731	네패스	1,434	디아يدي	-50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미래에셋증권	18 일	KPX케미칼	18 일
대교	12 일	일성신약	15 일
한일시멘트	10 일	LG패션	15 일
오뚜기	10 일	세아베스틸	14 일
삼성전기	10 일	울촌화학	14 일
오리온	9 일	코오롱	11 일
넥센타이어	9 일	GS	10 일
남양유업	9 일	현대건설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56 일	평화정공	12 일
메디포스트	15 일	모두투어	8 일
서울반도체	6 일	포스코캠텍	6 일
메가스터디	5 일	파라다이스	6 일
에이블씨엔씨	5 일	하나투어	6 일
포스코엠텍	4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유진기업	4 일	매일유업	4 일
테크노세미캠	4 일	동진세미캠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T	71,236	SK하이닉스	283,080
SK하이닉스	47,340	LG디스플레이	31,431
LG전자	45,283	호텔신라	28,876
KB금융	40,510	SK텔레콤	26,341
LG디스플레이	39,132	현대건설	19,411
KODEX 인버스	38,948	한국전력	18,481
삼성전기	27,559	GKL	16,072
현대중공업	25,657	GS	15,527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블씨엔씨	25,782	파라다이스	18,108
에스엠	10,120	서울반도체	16,607
파라다이스	9,371	파트론	15,787
성우하이텍	6,288	하이록코리아	11,786
포스코 ICT	5,435	유진테크	10,714
메디포스트	5,207	컴투스	7,154
루멘스	4,501	오스템임플란트	6,370
코오롱생명과학	4,133	슈프리마	5,93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품		16,050	865 16,915
통신업		6,839	6,921 13,759
의약품		7,091	1,856 8,947
SK하이닉스		1,789	57,964 59,753
LG디스플레이		18,035	10,367 28,403
LG전자		14,165	1,623 15,788
오리온		6,277	3,786 10,063
GKL		1,274	6,023 7,296
KT		6,141	832 6,973
KODEX 인버스		3,105	3,407 6,512
삼성화재		2,930	2,207 5,137
고려아연		1,151	3,814 4,965
롯데쇼핑		3,806	511 4,31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오락,문화		3,379	2,899 6,278
사업지원		3,275	1,200 4,475
디지털컨텐츠		905	3,294 4,199
파라다이스		2,469	3,121 5,590
매일유업		2,602	1,503 4,105
하나투어		2,738	932 3,670
슈프리마		519	3,099 3,617
코오롱생명과학		3,228	109 3,337
씨티씨바이오		2,491	13 2,504
성우하이텍		2,095	52 2,148
게임빌		224	1,661 1,885
메디포스트		1,000	556 1,556
KG이니시스		1,223	138 1,36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S&P500선물(H)	29 일	화신	20 일	하이록코리아	22 일	KCC건설	21 일
현대건설	15 일	미래에셋증권	17 일	심텍	18 일	실리콘웍스	21 일
KODEX 구리선물(H)	13 일	에스엘	8 일	덕산하이메탈	13 일	인터플렉스	9 일
TIGER 금은선물(H)	13 일	금호석유	8 일	STS반도체	5 일	SBS콘텐츠허브	8 일
대한항공	12 일	대우조선해양	8 일	다날	4 일	메가스터디	5 일
TIGER 200	12 일	대한제분	6 일	우주일렉트로	4 일	코미팜	3 일
롯데제과	10 일	GS건설	6 일	성광벤드	3 일	현진소재	3 일
KODEX 국고채	9 일	카프로	6 일	이오테크닉스	3 일	에스엔유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37,845	삼성전자	-236,709	덕산하이메탈	-8,473	다음	-2,724
LG화학	-42,561	효성	-57,837	인터플렉스	-8,403	인터플렉스	-2,684
현대건설	-34,874	기아차	-44,582	CJ오쇼핑	-6,125	에이블씨엔씨	-2,158
대한항공	-34,488	KB금융	-39,472	성광벤드	-5,752	이노칩	-2,009
GS	-32,268	롯데케미칼	-37,658	옵트론텍	-5,703	실리콘웍스	-1,548
기아차	-24,156	KT	-35,195	컴투스	-5,363	미래나노텍	-1,454
현대글로벌비스	-23,441	LG화학	-32,882	SK브로드밴드	-4,816	디아아이디	-1,412
SK이노베이션	-21,710	현대중공업	-29,620	이엘케이	-3,095	플렉스컴	-1,36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건설업	-7,690	-288	-7,978	금속	-1,505	-27	-1,532
섬유,의복	279	495	774	통신장비	-320	-345	-665
종이,목재	3,140	1,044	4,184	정보기기	-455	-153	-608
효성	-327	-7,325	-7,651	덕산하이메탈	-1,326	-503	-1,829
LG화학	-2,731	-4,322	-7,053	하이록코리아	-731	-260	-991
제일모직	-5,098	-485	-5,583	이엠텍	-613	-81	-694
한국가스공사	-1,003	-1,933	-2,935	에스비엠	-527	-121	-648
TIGER 200	-1,628	-368	-1,996	한글과컴퓨터	-608	-30	-638
대림산업	-1,416	-482	-1,898	큐로컴	-456	-170	-627
동양기전	-1,195	-551	-1,746	일진에너지	-567	-46	-613
제일기획	-71	-1,526	-1,597	젬백스	-205	-329	-534
자화전자	-1,208	-149	-1,357	케이아이엔엑스	-377	-75	-452
현대상선	-167	-1,098	-1,265	캠트로닉스	-258	-77	-33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2	33,615
고려아연	14	5,168
SK하이닉스	182	5,147
아모레퍼시픽	5	4,778
호텔신라	70	3,675
현대상선	193	3,308
LG디스플레이	95	3,029
OCI	17	3,02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씨티씨바이오	44	1,125
차바이오엔	92	1,039
세중	75	533
실리콘웍스	20	457
에스엠	9	397
유진테크	21	396
파트론	14	354
KH바텍	19	333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440	5,156,797
POSCO	9,120	3,123,677
LG전자	27,238	2,116,362
OCI	8,227	1,468,432
현대차	4,652	993,275
NHN	3,519	964,070
SK하이닉스	26,894	759,759
현대모비스	2,350	722,6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110	459,416
서울반도체	5,323	164,223
파라다이스	4,149	87,137
에스엠	1,966	86,317
덕산하이메탈	2,649	71,519
에이블씨엔씨	759	62,029
차바이오엔	5,020	56,974
파트론	2,170	56,209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보험	2,614	금융업	-1,812
전기,전자	2,224	종이,목재	-892
운수장비	2,062	통신업	-662
현대상선	3,983	한진해운	-3,391
SK하이닉스	2,981	LG전자	-2,571
한화생명	2,635	신한지주	-1,597
넥센타이어	1,423	STX팬오션	-1,596
대우조선해양	904	월비스	-831
대창	629	페이퍼코리아	-699
KEC	606	KT	-540
기아차	577	LG	-488
POSCO	575	KB금융	-449
한라건설	563	효성	-4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종합건설	1,797	제약	-1,527
IT부품	935	반도체	-361
도매	210	금융서비스	-187
서희건설	1,646	셀트리온	-1,874
파트론	292	멜파스	-139
차바이오엔	285	덕산하이메탈	-123
인터플렉스	255	루멘스	-112
JW중외신약	187	하이비전시스템	-94
3S	170	하이비전시스템	-94
서한	155	주성엔지니어링	-85
대아티아이	152	디지텍시스템	-73
한국사이버결제	113	한글과컴퓨터	-67
씨티씨바이오	112	하나투어	-6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05(화)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외국인	-60.4	260.2	-158.6	91.7	26.2	-50.6	-4.2	-221.7
기관계	1,265.5	-73.0	345.4	-77.8	60.6	-103.5	75.5	390.6
(투신)	-1,797.9	-475.0	-267.0	-83.9	-29.9	-127.9	-54.5	29.3
(연기금)	1,583.6	57.7	126.7	7.4	60.8	16.9	22.8	18.7
(은행)	18.3	-22.8	-8.9	4.9	-30.6	1.2	-6.4	21.9
(보험)	378.6	-4.2	49.8	24.0	3.0	12.5	16.0	-5.6
개인	-842.8	-154.2	-169.2	-4.2	-78.2	149.2	-72.1	-164.0
기타	-362.3	-33.0	-17.6	-9.8	-8.6	4.9	0.9	-5.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04(월)	03/05(화)	03/06(수)	03/07(목)	03/08(금)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13.15	2,016.61	2,020.74	2,004.40	2,006.0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222.4	18144.0	17889.1	18373.8	18108.8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011.5	-78.4	-254.9	484.7	-265.0
(회전율)	52.6	51.5	34.2	34.0	34.4	36.2	32.7	31.7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916.8	-567.1	-333.9	355.9	-360.8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109.4	4087.6	4099.2	4143.1	4162.3
미수금	240.2	192.3	187.7	113.2	100.8	121.3	124.3	126.9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2/28(목)	03/04(월)	03/05(화)	03/06(수)	03/07(목)
전체 주식형	92,132	-2,162	-494	76	-162	20	-130	-222
(ex. ETF)		-2,683	-546	46	-196	-60	-148	-143
국내 주식형	66,961	-1,425	-459	51	-151	27	-117	-218
(ex. ETF)		-1,956	-512	22	-185	-53	-135	-139
해외 주식형	25,171	-736	-35	25	-11	-7	-13	-4
(ex. ETF)		-728	-35	25	-11	-7	-13	-4
주식 혼합형	9,733	-239	-19	-17	6	-10	-8	-7
채권 혼합형	19,725	430	-240	380	109	15	-369	5
채권형	48,879	1,520	360	39	100	187	-13	87
MMF	79,318	15,996	2,250	-1,783	-330	3,097	1,010	-1,52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05(화)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한 국	-56	252	1,069	84	24	-47	-4	-190
대 만	1,877	340	1,201	111	74	35	135	29
인 도	8,729	491	814	56	119	127	-	-
인도네시아	2,081	331	512	-2	63	42	-30	16
태국	95	179	423	-14	37	-16	53	-
남아공	1,236	289	362	18	71	21	-	-
필리핀	1,064	251	252	0	41	188	2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3/04(월)	03/05(화)	03/06(수)	03/07(목)	03/08(금)	03/08(금)
회사채 (AA-)	3.29	2.99	2.97	2.99	3.01	3.01	3.01
회사채 (BBB-)	8.80	8.58	8.57	8.59	8.61	8.61	8.61
국고채 (3년)	2.82	2.63	2.63	2.64	2.66	2.66	2.66
국고채 (5년)	2.97	2.74	2.73	2.75	2.77	2.77	2.78
국고채 (10년)	3.16	2.94	2.93	2.96	2.99	2.99	3.00
미 국채 (10년)	1.76	1.87	1.89	1.94	2.00	2.04	-
일 국채 (10년)	0.80	0.62	0.63	0.65	0.67	0.66	-
원/달러	1,070.60	1,093.20	1,087.00	1,082.60	1,087.10	1,090.30	1,094.80
원/엔	1,243.73	1,168.44	1,167.43	1,160.09	1,151.83	1,132.66	1,139.22
엔/달러	86.08	93.56	93.11	93.32	94.38	96.26	96.10
달러/유로	1.32	1.29	1.30	1.30	1.31	1.30	1.30
DDR3 1Gb (1333MHz)	0.67	0.84	0.84	0.84	0.86	0.86	-
DDR3 2Gb (1333MHz)	1.07	1.59	1.62	1.67	1.70	1.75	-
NAND Flash 16Gb (MLC)	1.89	1.90	2.03	2.02	2.06	2.08	-
CRB 지수	295.01	290.72	291.58	289.84	292.73	294.38	-
LME 지수	3,454.5	3,339.8	3,357.3	3,322.5	3,353.8	3,344.9	-
BDI	699	789	806	820	834	843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0.45	90.87	90.45	91.56	91.95	-
금 (달러/온스)	1,663.40	1,572.40	1,574.90	1,574.90	1,575.10	1,576.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3월 5일	266.54	267.50	0.20	0.96	0.62	205,779	123,191	-1,319
3월 6일	267.25	267.50	0.18	0.25	0.29	205,103	120,930	-2,261
3월 7일	264.78	264.90	0.16	0.12	0.46	221,800	115,835	-5,095
3월 8일	264.57	265.00	0.14	0.43	0.18	181,724	113,783	-2,052
3월 11일	264.15	264.70	0.14	0.55	0.41	224,856	103,331	-10,452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3월 5일	-629	913	-353	-977	280	328	18	0
3월 6일	-1,856	294	1,649	1,460	-6	96	62	0
3월 7일	-3,170	480	2,966	2,281	644	-33	79	0
3월 8일	1,704	-942	-746	-1,452	863	-17	-156	0
3월 11일	1,166	-1,420	118	141	-50	-208	109	-6
누적포지션	-9,810	13,702	-2,875	-6,255	826	1,060	558	94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3월 5일	705	725	20	699	700	1	6	25	19	5,278	10,189
3월 6일	666	764	98	662	722	60	4	43	38	5,276	10,227
3월 7일	675	588	-88	667	570	-97	9	18	9	5,274	10,227
3월 8일	559	836	277	553	770	217	6	66	60	5,269	10,275
3월 11일	639	895	257	627	837	210	12	5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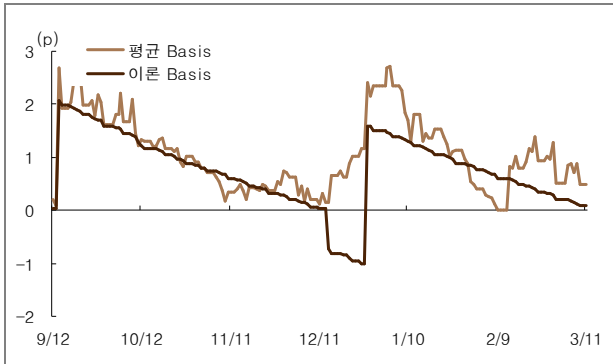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21.49	2,892	62,151	0.01	277.50	12.85	69	-22	0.00
19.58	-441	152,374	0.02	275.00	10.35	267	-93	0.00
19.14	1,674	257,475	0.07	272.50	7.95	752	-52	0.00
19.03	5,448	382,180	0.23	270.00	5.60	4,460	-79	0.00
19.48	1,837	441,722	0.67	267.50	3.50	23,281	-835	12.52
21.00	4,888	326,428	1.64	265.00	2.01	195,544	-1,087	16.55
23.54	3,195	97,090	3.20	262.50	1.07	321,403	3,025	18.87
27.70	797	12,038	5.25	260.00	0.58	358,526	737	21.37
32.97	-24	1,680	7.55	257.50	0.34	263,866	1,885	24.21
39.56	1	306	10.00	255.00	0.22	211,803	1,709	27.34
45.69	-11	49	12.45	252.50	0.16	154,474	-2,602	3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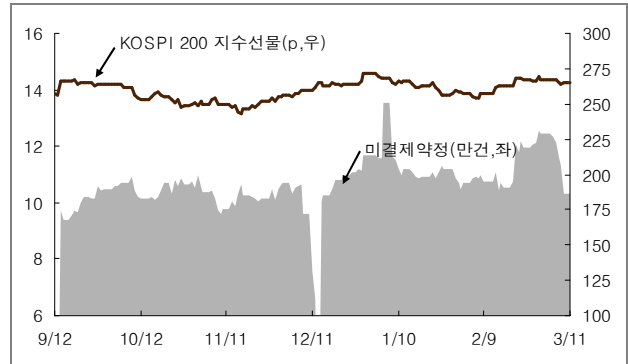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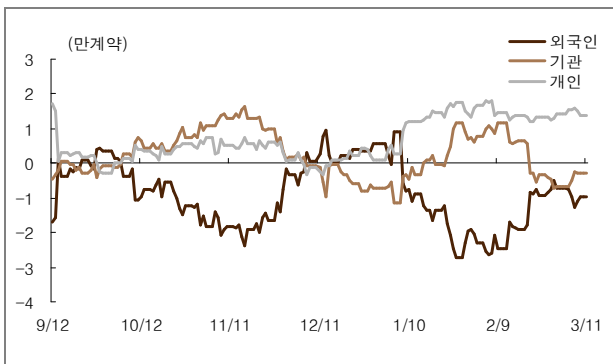
- 평균 Basis: 0.49 (전 거래일 대비 0.38 하락)
- 이론 Basis: 0.08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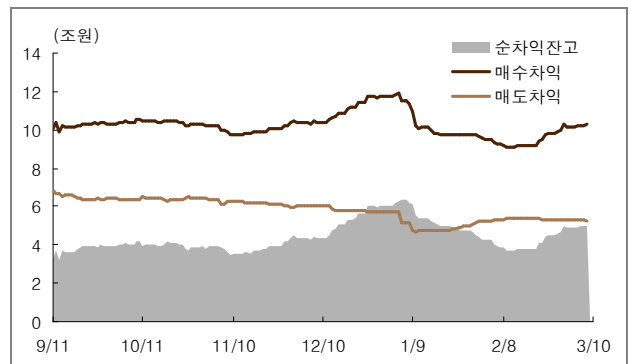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0,452 계약 감소한 103,331 계약
- 선물가격(264.70): 전 거래일 대비 0.8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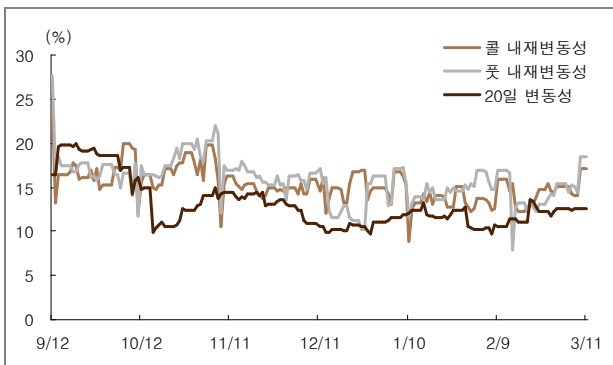
- 외국인: 1,166 계약 순매수
- 기관: 118 계약 순매수 / 개인: 1,420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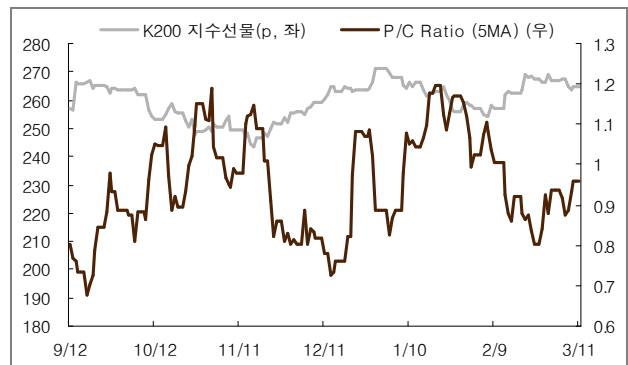
- 차익거래: 464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2,102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7.1% / 풋 18.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51%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4	5	6	7	8
韓>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1.4%, 1.6%, 1.5%) 2월 HSBC PMI 제조업 (50.9, n/a, 49.9) 유럽> (3/4-5)유로존,EU재무장관회의 中> (3/3)전국민민정지협상회의 개막 (3/3) 2월 PMI 비제조업 (54.5, n/a, 56.2)	美> 2월 ISM 비제조업 (56.0, 55.0, 55.2) 유럽> 1월 유로권 소매판매 MoM (1.2%, 0.3%, -0.8%) 中> 2월 HSBC PMI 서비스 (52.1, n/a, 54.0)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4.8%, n/a, -3.8%) 2월 ADP 취업자 변동 (19.8만, 17.0만, 19.2만) 연준 베이지북 발간 유럽> 4분기 유로권 GDP QoQ (-0.6%, -0.6%, -0.6%) 4분기 유로권정부지출 QoQ (n/a, n/a, -0.1%)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0만, 35.5만, 34.7만) 1월 무역수지 (-\$444억, -\$426억, -\$381억) 소비자신용지수 (\$161억, \$147억, \$157억) 유럽> ECB / BOE 금리 공시 日> BOJ 정책 금리 공시	美> 2월 비농가 고용자수 변동 (n/a, 16.5만, 15.7만) 2월 실업률 (n/a, 7.9%, 7.9%) 中> 2월 무역수지 (n/a, -\$69.5억, \$291.5억) 2월 수출 YoY (21.8%, 8.1%, 25.0%) 2월 수입 YoY (-15.2%, -8.5%, 28.8%) 日> 1월 경상수지 YoY (-19.9, 31%, -199.4%)
11	12	13	14	15
中> (3/9)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3.2%, 3.0%, 2.0%) (3/9)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6%, -1.5%, -1.6%) (3/9) 2월 산업생산 YoY (9.9%, 10.6%, 10.0%) (3/9) 2월 소매판매 YoY (12.3%, 15.0%, 14.3%) 2월 신규 위안 대출 (6200억, 7000억, 1조7000억) 2월 통화공급 M2 YoY (15.2%, 14.9%, 15.9%) 日> 2월 통화량 M2 YoY (2.9%, 2.7%, 2.7%) 실적발표> 美 디스 스포팅 굿즈	美>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n/a, 90.0, 88.9) 日>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43.0, 43.3) 실적발표> 美 코스트코 홀세일 어반 아웃피터스	韓> 2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8.1%) 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10.6%) 2월 실업률 (n/a, 3.2%, 3.2%) 1월 통화공급 M2 YoY (n/a, n/a, 0.1%)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14.8%) 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0.6%, -1.3%) 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5%, 0.1%) 1월 기업재고 MoM (n/a, 0.4%, 0.1%) 유럽> 1분기 유로권 산업생산 MoM (n/a, -0.1%, 0.7%)	韓> 금통위 금리 결정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5.0만, 34.0만)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n/a, 1.8%, 1.4%) 유럽> (3/14-15) EU 정상 회담 中> 2월 실질 FDI YoY (n/a, -4.8%, -7.3%) 실적발표> 美 에어로포스텔	美>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10.00, 10.04)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n/a, 0.5%, 0.0%) 2월 산업생산 MoM (n/a, 0.4%, -0.1%)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77.8, 77.6) 유럽> 2월 유로권 소비자 물가지수 (n/a, 1.8%, 1.8%)
18	19	20	21	22
韓> 2월 백화점 매출 YoY 2월 할인점 매출 YoY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美>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美> 2월 주택착공건수 MoM 2월 건축 허가 MoM 日> BOJ 총재 임기 만료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FOMC 금리 결정 유럽> 3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 주택가격지수 MoM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2월 기존주택매매 MoM 2월 경기선행지수 유럽> 3월 유로권 PMI 제조업 3월 유로권 PMI 비제조업 中> 3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中> 3월 HSBC 플래시 BSI 日> 전국 백화점 판매액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